미국인 47%, "전기차 구매 계획 없다"

▲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. 사진=shutterstock

미국 정부가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2032년까지 신차 중 전기차 판매 비중을 67%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. 하지만 미국인의 절반가량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.

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(NORC)·에너지정책연구소(EPIC)가 전날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%는 '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없다' 고 밝혔다. 이번 조사는 지난 1~2월 미국 성인 표본 5천4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, 표본 오차는 ±1.7%포인트 수준이다.

전기차 구매 가능성이 "아주 높다" 는 응답은 19%, "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" 는 22%로, 응답자의 41%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.

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응답자 10명 중 6명꼴로 '비싼 가격' 을 꼽았다.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신차의 가격은 평균 5만8천달러가 넘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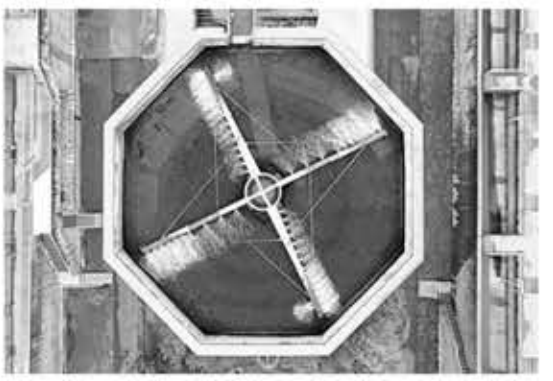
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점도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꼽혔다. 이번 조사 응답자 중 4분의 3이 "충전소가 너무 적다" 고 지적했다.

전체 응답자 3분의 2는 "가솔린 차량을 더 좋아해서"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.

AP통신은 미국 정부가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,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.

하수 모니터 시스템으로 마약 감시

미국에서 펜타닐 등 마약 문제가 대두한 가운데 한 카운티가 생활 폐수를 이용해 마약 사용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

▲ 캘리포니아주 마린카운티 위생당국이 마약 사용 감시를 위해 생활 폐수 표본을 수집하는 시설. 사진=연합뉴스

11일 '연합뉴스' 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북부에 위치한 마린카운티는 지난 2월부터 행정중심지인 샌러펠의 하수 시설에서 1주에 두 번 50㎖의 표본을 수집해 펜타닐, 메스암페타민, 코카인, 니코틴 등 불법 약물 검출 여부를 조사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수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가 다량 검출될 경우 위생당국은 마약 해독제인 '나르칸' 보급 속도를 올리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.

마린카운티 등 미국의 도시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하수 표본을 검사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이미 구축된 기반 시설을 마약을 추적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전용하기로 한 것이다.

마린 카운티 공중보건 담당관인 맷 윌리스 박사는 "약물 과다복용 문제로 공중보건이 위기에 놓였다." 며 "코로나19 대유행 때 적용한 이런 감시 방법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" 고 말했다.

빈 사무실 늘어난다 "은행권 위기 새 뇌관 될 수도"

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은행권에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.

▲ 한 건물 창가에 붙어있는 임대 싸인. 사진=shutterstock

11일 '연합뉴스' 에 따르면 CNN 비즈니스의 전날 부동산 시장 정보 제공업체인 '그린 스트리트' 를 인용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지난달 직전 고점 대비 15% 떨어졌으며 특히 사무용 건물의 가격 하락 폭은 더욱 큰 상태라고 전했다.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혼합 근무 체제가 널리 퍼지면서 사무실 평균 점유율은 2020년 3월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.

설상가상 경기둔화까지 더해지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올해 20~25% 정도 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사무용 건물의 경우는 가치 하락률이 30%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.

부동산 가치 하락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안고 있는 금융권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CNN 비즈니스는 지적했다. 미국 사무실 대출의 55% 정도는 은행 대출이며 지역은행과 커뮤니티은행의 사무실 대출 비중도 전체의 23% 정도에 이른다.

최악의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이 많은 금융권에 대한 불안이 실리콘밸리은행(SVB)을 파산으로 내몬 것과 같은 예금 대량 인출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CNN 비즈니스는 전했다.

낱말퍼즐 정답

1 지	평	2 선	■	■	3 정	보	4 통
렛	■	5 대	6 명	천	지	■	계
7 대	8 출	■	란	■	■	9 신	청
■	혈	■	젓	■	10 미	신	■
■	11 경	마	■	12 잠	■	당	■
13 언	쟁	■	■	망	■	14 부	15 마
월	■	16 타	초	경	17 사	■	라
18 도	시	락	■	■	19 인	지	도

1468호 숫자퍼즐 (이번호 정답은 P51에 있습니다)

5			7				8	1
	1			8	2			
		2	3			6		
7		4			9			
			2				1	8
		6		3		7		
	6	5			3			4
3	9			7				
						1	3	